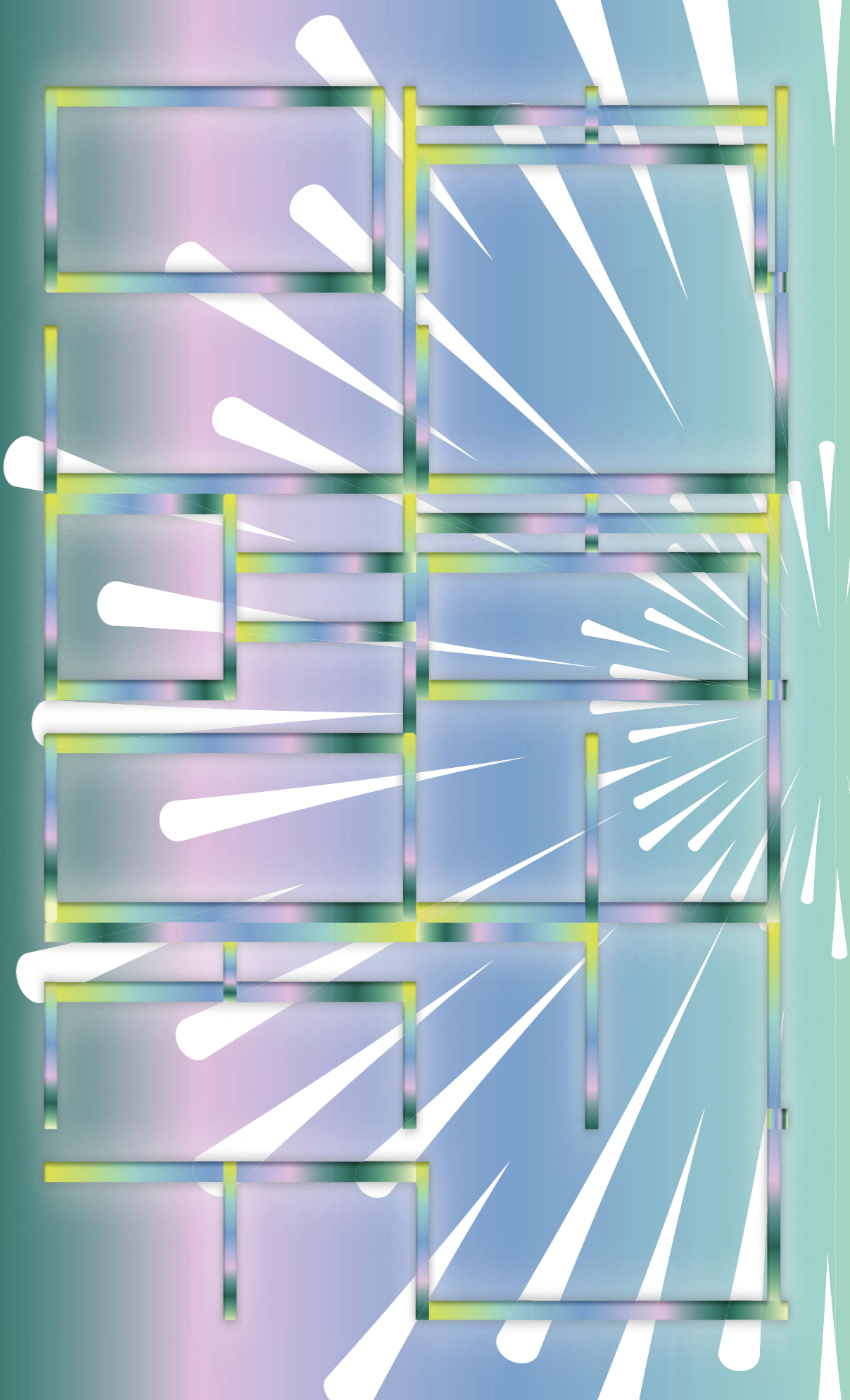


열린 공동체의 도시, 인천
INCHEON, CITY OF OPEN
COMMUNITY

인천 영화 주간 2021 INCHEON FILM WEEK 2021



주최



주관



목차

인천 영화 주간 2021 INCHEON FILM WEEK 2021

인사말	1p
축사	2p
여는 글	3p
전체 행사 공간	4p
상영가이드	5p
전체 일정표	6p
개막식·시네마 콘서트	8p

인천 영화 주간 2021	12p
아카데미	30p
전시	33p

인천 영화 열전	36p
2021 인천 영상 포럼	44p

이벤트	47p
-----	-----

인사말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원석

‘인천 영화 주간 2021’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열린 공동체의 도시, 인천에서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 영화 주간은 한국 최초의 극장인 애관극장이 위치한 동인천을 중심으로 인천 전역에서 펼쳐지는 일주일간의 영화 축제입니다. 개항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든 정취 가득한 이곳 동인천, 경동 거리는 과거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첫 개항지로서 화려한 문화가 꽃 피는 인천 최대의 중심가이자 변화하였습니다. 서양 문물이 가장 먼저 발을 딛는 곳인 만큼 다양한 예술이 경동 거리를 필두로 활발하게 펼쳐졌고 인천 문화 부흥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예술의 봄이 일어 많은 예술 극단과 단체들이 경동 거리에 동지를 들고 연일 최고의 예술을 선보였으며 수많은 관객이 전국 각지에서 문화 예술을 누리기 위해 인천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최초의 근대 극장인 애관극장이 자리 잡은 곳도 바로 인천의 경동 거리였습니다. 인천은 극장의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했다고 불릴 만큼 경동 거리 일대에만 10여 개의 극장이 자리 잡았고 수많은 ‘시네마 키드’들이 인천의 극장에서 영화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인천 영화의 부흥기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등장과 경제 성장에 밀려 조금씩 잊혀갔고 경동 거리의 시간은 100여 년 전의 예스러운 극장들과 함께 사라지고, 또 멈춰버렸습니다. 비록 세월이 빛바랜 시간이지만 추억이라는 감상적인 단어로만 가둬두기엔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한 ‘인천의 시네마 천국’. 그 화려하고 활발했던 시간의 시계태엽을 관객 여러분과 함께 다시 되감아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시작되는 인천 영화 주간은 ‘열린 공동체의 도시, 인천’이라는 주제로 ‘영화’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준비했습니다.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상영과 눈과 귀를 사로잡는 시네마 콘서트, 아카데미, 인천 영화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누군가는 추억과 향수를, 또 누군가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일주일이 아직은 작은 걸음에 불과하지만 멈춰있던 인천의 문화 예술에 활기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인천 영화 주간을 개최하기까지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부는 10월, 인천 영화 주간에서 영화를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 영화 주간’의 첫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원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 활동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개항 이후 인천은 신문물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재창조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도시’였습니다.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새로운 문물들이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다채롭고 특별한 매력을 엮어냄으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다양성을 가진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매력은 자연히 영화 산업과도 밀접하게 어우러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제일 먼저 만나는 항구의 도시, 120여 년이 지나도록 여전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 도시로서 영화적 상상력을 구체화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인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매년 100여 편 가량의 영상물들이 인천을 배경으로, 인천을 상상력 삼아 탄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영화의 시작을 함께 했던 인천이,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영화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인천 영화 주간 2021’입니다. ‘인천 영화 주간 2021’을 통해 인천 영화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의 ‘처음’, ‘최초’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인천 영화 주간 2021’ 개최를 축하드리며, 저 역시 영화 속에서 표현될 인천의 다채로운 매력을 기대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는 글

열린 공동체의 도시, 인천

희망의 공간

식민 시기부터 인천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건축, 금융, 교통 등 각종 근대의 스펙터클이 집약되는 새로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활동사진이란 이름으로 함께 들어온 영화는 그 자체로 신기한 근대의 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해가는 도시를 한눈에 경험하고 그 속에 앞으로의 희망을 새겨 넣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도시와 영화를 통해 인천을 경험하고, 인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도시 속의 영화는, 그리고 영화 속의 도시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으로 서로를 되먹이는 가능성의 공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열린 공동체의 도시, 인천

인천이라는 개방적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동체의 이미지와 부합합니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는 개항장 거리와 차이나타운이란 과거 조계지의 흔적이, 그리고 현재에는 세계와 국내 간의 관계 맺기를 주도하고 있는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의 존재가 그 이미지와 함께 떠오릅니다. 물론 이러한 개방성은 자본과 계급, 젠더, 인종, 세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영화에서 인천의 공동체가 폭력적 관계와 연결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인천을 그려내는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여러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가능성의 조건을 되물게 되었던 게 아닐까요? 인천은, 그리고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은 열린 공동체의 도시를 가장 먼저 상상하고 실험한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옆으로’ 향한 체험

열린 공동체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폐쇄적인 정체성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개방적인 관계의 윤리를 묻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공동체 안의 결여를 더 우월한 공동체로 해소하기 위해 ‘위로’ 향하지도, 자신의 초라함에 묻혀 ‘아래로’ 고개를 숙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소외시키는 공동체의 규율에 저항하며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익숙함이란 타성에 젖어 ‘안으로’ 숨어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타인들과 연결되기 위해 ‘옆으로’를 외치며 서로를 돌보는 열린 공동체의 체험을 만들어 갑니다.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통해, 우리는 인천의 극장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다시금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 영화 주간은 영화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옆으로’를 향한 체험을 ‘열린 공동체의 도시, 인천’의 본원적인 가치로 되새기고자 합니다.

행사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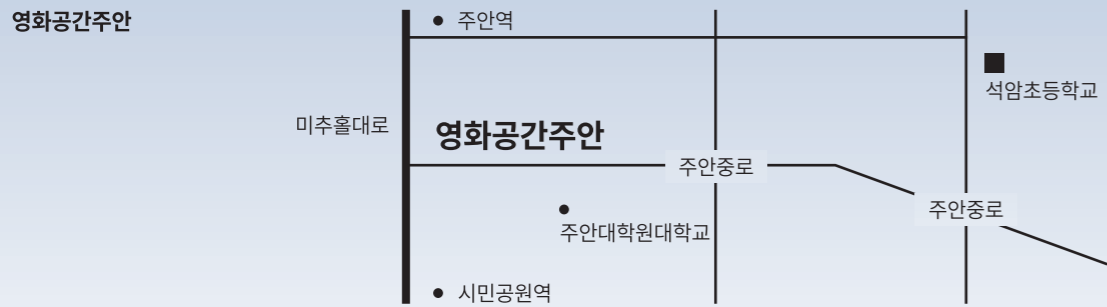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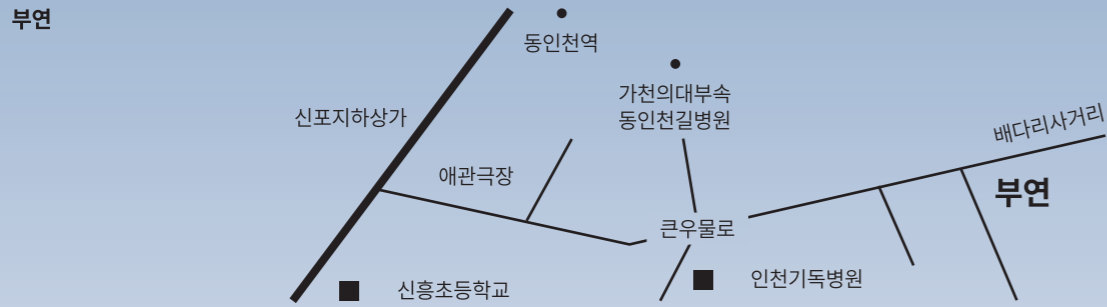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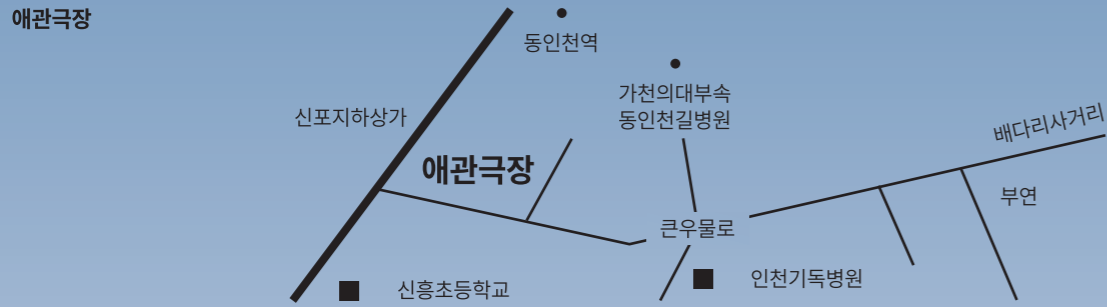
애관극장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63-2
부연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106번길 8
영화공간주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16(주안동, 메인프라자 7층)

인포메이션 및 티켓 발권

- 10.23.(토)—10.24.(일) 애관극장 로비
- 10.26.(화)—10.29.(금) 영화공간주안 로비

상영 장소		주차	
• 애관극장 1관	• 애관극장 2관	애관극장	주차 공간 이용(무료)
• 애관극장 3관	• 영화공간주안 3관	영화공간주안	인근 공용 주차장 및 대중교통 이용

찾아오시는 길



상영 가이드

코로나19 관련 유의 사항

- 입·퇴장 시 자원활동가 및 현장 스태프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상영관 및 행사장 입장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사장 입장 전, 입구에서 체온 측정 후 입장 가능합니다.
- ※ 37.5도 이상 시 입장 불가
-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관련 기관 제출 목적으로 수집되며, 4주간 보관 후 폐기됩니다.
- ※ 전자출입명부 제출자에게 스티커가 배부되며, 이를 부착한 관객에 한해 행사장 입장을 허용합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방문자 명부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상영관 및 행사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방문일 14일 이내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행사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상영관은 ‘좌석 간 거리 두기’로 운영됩니다.(상영관 내에서 무단으로 자리 이동 시, 퇴장 조치)
- 매표 및 입장 대기 시에는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최소 1m)를 지켜주세요.
- 행사장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 ㉔ 전체 관람가
- ㉒ 12세 이상 관람가
- ㉑ 15세 이상 관람가
- ㉐ 18세 이상 관람가

티켓 안내

티켓 가격: 무료(온라인 예매)

상세 방법

1. 온라인을 통한 선착순 사전 예매
- 온라인 예매 기간: 10.11.(월)—10.20.(수)
- ‘인천 영화 주간’ 네이버 예매 시스템 확인
2. 신청 순서에 따라 개별 확정 안내
3. ‘인천 영화 주간’ 기간 내 실물 티켓 교환
- ※ 티켓 교환 장소: 애관극장, 영화공간주안 내 티켓 부스
- ※ 온라인 예매를 원칙으로 하며, 티켓은 당일 프로그램에 한해 발권 가능

상영관 운영 안내

- 모든 상영관은 티켓 소지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입장은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허용합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불가하며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상영작 관람 등급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영관 내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TALK 관객과의 대화
영화해설

인천 영화 주간 2021 전체 일정표

일자	장소	프로그램
10.23.(토)–10.24.(일)	애관극장	인천 영화 주간 2021
10.26.(화)–10.28.(목)	영화공간주안	인천 영화 열전
10.29.(금)	영화공간주안	2021 인천 영상 포럼
10.19.(화)–10.29.(금)	부연	특별 전시 : 영화와 극장이 있는 인천 풍경

인천 영화 주간 2021 프로그램 일정표

일자	장소	시간	프로그램	상영정보	등급	페이지
10.23.(토)	애관극장 1관	13:30	개막식 + 시네마 콘서트		㉔	P.8
		19:00	차이나타운	TALK	18	P.24
	애관극장 2관	16:00	파이란	TALK	15	P.28
		19:30	슈퍼스타 감사용	TALK	㉔	P.22
애관극장 3관	16:30	토크: 영화가 상상하는 현대의 방식들		㉔	P.31	
10.24.(일)	애관극장 2관	11:30	그대를 사랑합니다		15	P.16
		14:30	천하장사 마돈나		15	P.26
		18:30	무뢰한	TALK	18	P.20
	애관극장 3관	11:00	담보		12	P.18
		14:00	고양이를 부탁해		12	P.14
		17:00	토크: 인간을 품은 도시, 도시를 품은 영화		㉔	P.32

INTERNET

개막식

10.23.(토) 13:30
애관극장 1관

‘열린 공동체의 도시, 인천’이라는 주제로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상영과 음악 공연, 아카데미,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아우르는 ‘인천 영화 주간 2021’ 개막식이 개최된다. 개막식에서는 인천 영화 주간 프로그램 소개와 더불어 김경태 프로그래머의 오프닝 스피치, 트레일러 상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자

유진영

수도권 지상파 방송국인 OBS 경인 TV 개국과 함께 입사한 유진영 아나운서는 OBS를 대표하는 아나운서로서 메인 OBS 뉴스 앵커부터 우리말 프로그램 <정말로>, <꿈꾸는 U> 등 다양한 프로그램 MC로 활약해왔다. 또한 문학산 음악회, 바다 동요 대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굵직한 행사에서 신뢰감 있는 진행으로 인정받으며,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주최하는 2020 한국아나운서대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프로그래머

김경태

연세대학교 강사. 중앙대학교 영상예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으로 『친밀한 유토피아: 한국 남성 동성애 영화가 욕망하는 관계성』을 썼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객원연구원, 부산국제영화제 지식영화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시네마 콘서트

10.23.(토) 14:30
애관극장 1관

영화음악을 중심으로 애관극장에서 펼쳐지는 시네마 콘서트. <셀부르의 우산>, <카사블랑카>부터 <광해, 왕이 된 남자>, <악마를 보았다>까지 고전부터 현대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음악을 아름다운 선율로 만나볼 수 있다. 독보적인 음악적 세계를 구축하고 국내 여러 흥행 영화의 음악을 책임져 오고 있는 음악감독 모그와 그 앙상블이 함께한다.



모그 Bass

현재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음악감독이자 뮤지션이다. 2003년까지 뉴욕에서 재즈를 비롯한 세션 베이스스트로 활동해왔고 귀국하여 2004년 1집 앨범 <Desire>로 발매하여 국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의 음악을 맡으며 한국 대중에게 영화 음악 감독으로도 알려지기 시작, <도가니>, <광해, 왕이 된 남자>, <동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의 작품을 통해 드라마틱하면서도 인물의 슬픔이 묘하게 배어있는 다양한 음악을 담아내고 있다.



류승민 Guitar

2020 JTBC <경우의 수> 작편곡
2020 MBC <나를 사랑한 스파이> 작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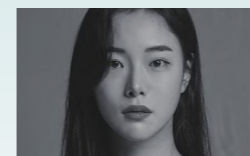
엄주빈 Piano

2014 김혜자의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 극중 연주
2015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 전체 수록곡 편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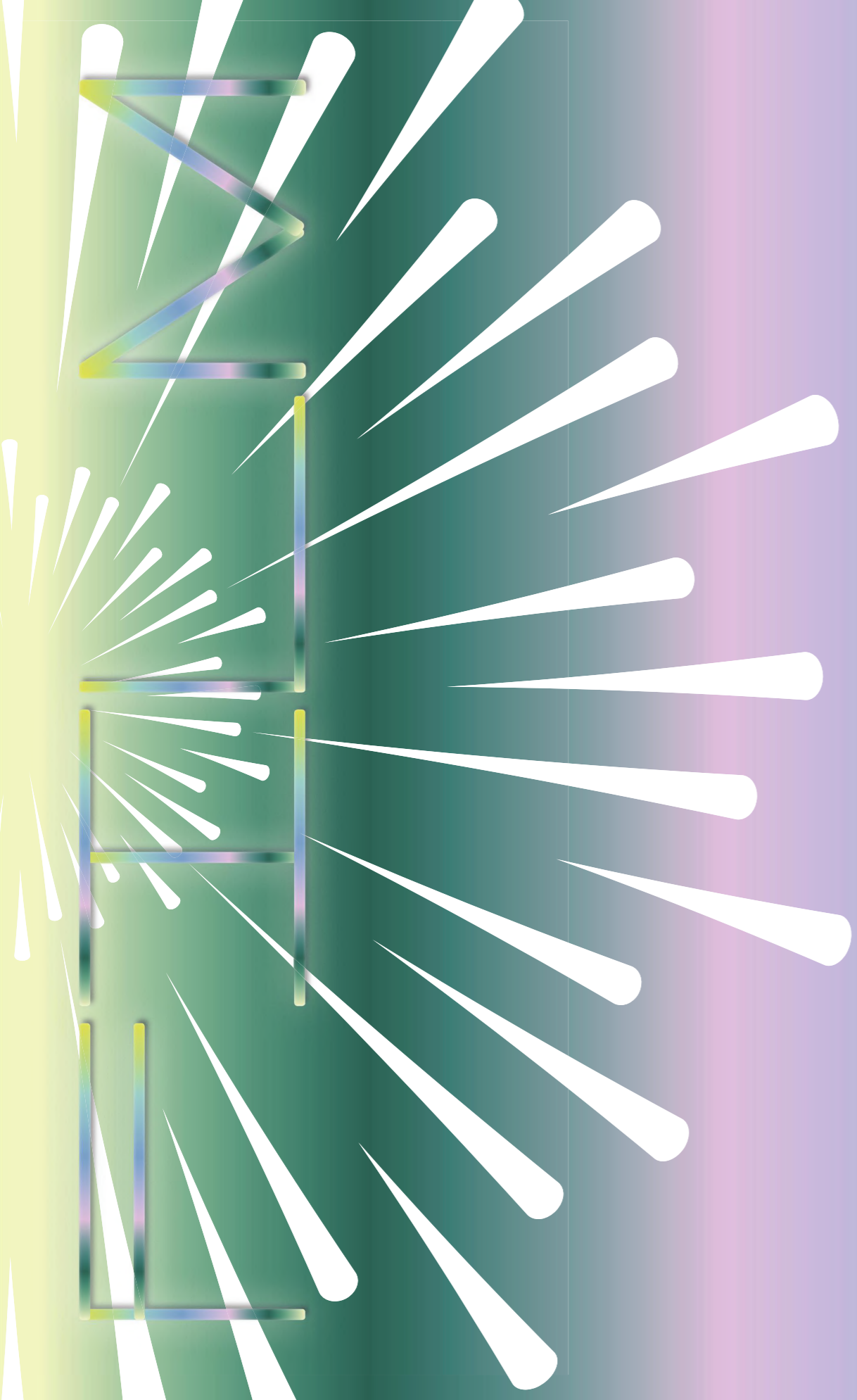
임형진 Contra Bass

2021 <그라운드제로> 작편곡
<엑시트> 외 30편의 영화음악 연주세션 참여



진초록 Vocal

2020 영화 <개들의 시간> 참여
2021 뮤지컬 <백만송이의 사랑> 참여
2021 연극 <준생> 참여



필름

올해 인천 영화 주간에서는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8편의 장편영화를 상영하고자 한다. 이 영화들은 빈곤한 여성, 이주노동자, 트랜스젠더, 독거노인 등 소외된 계층과의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의 논리에서 봤을 때, 이들은 실패한 삶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 실패는 보다 깊은 관계 맺기, 연대의 출발점이 된다. 관계의 윤리가 기준이 될 때, 즉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삶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풍족하지 못한 삶을 그저 불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20대 초반의 위태로운 여성들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 <파이란>에서는 삼류 건달과 이주노동자와의 위장 결혼으로 표명된 뜻밖의 연대에서 그 기원이 되는 감각으로 친절함을 발견한다. <차이나타운> 역시 그 친절함은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일별하게 한다. <담보>에서는 사채업자가 추방된 이주노동자의 딸을 기꺼이 입양하며 깊은 연대를 표명한다. <슈퍼스타 감사용>은 첫 승의 실패 후 야구팀 동료들이 함께 바닷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영화를 끝맺으면서 승리가 아니라 우애의 가치에 주목하도록 한다. <천하장사 마돈나>에서는 여성이 되고자 하는 소년은 결핍된 가족과 편견 어린 학교 대신에 차이를 포용하는 씨름부라는 대안적 공동체에서 지지와 위로를 받는다.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는 달동네에 사는 노인들이 서로를 정성껏 돌보며 사랑과 우정을 나눈다. <무뢰한>은 적대적인 관계인 농민 이들이 서로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일으키는 감정의 파동을 세밀하게 포착한다.

등장인물들은 우월한 공동체로 편입되기 위해 출세를 지향하며 ‘위로’를 외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들을 소외시키는 공동체의 규율에 저항하며 무작정 ‘밖으로’를 외치지도 않는다. 이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기에, 그만큼 세계와 직접 이어지는 맨몸의 감각, 그러니까 서로의 아픔과 결핍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옆으로’를 외치며 서로를 돌보는 ‘열린 공동체’의 체험을 만들어 간다. 그것은 도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오래된 미래의 모습이다. 그리고 인천이라는 개방적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풍경은 열린 공동체의 이미지와 부합하고 있다. 그 도시 공간은 타인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며 아옹다옹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친밀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며 우정과 연대를 돌보이게 한다.



고양이를 부탁해

Take Care of My Cat

10.24.(일) 14:00
 애관극장 3관

시놉시스

착하지만 엉뚱한 '태희(배두나)', 예쁜 깡쟁이 '혜주(이요원)', 그림을 잘 그리는 '지영(옥지영)'은 단짝 친구들이지만 스무 살이 되면서 가는 길이 달라진다. 증권회사에 입사한 혜주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야심을 키우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지영은 유학을 꿈꾼다. 한편 태희는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뇌성마비 시인을 좋아한다.

한국 | 2001 | 112' | ⑫

감독

정재은

- 고양이들의 아파트 (2020)
- 나비잠 (2017)
- 아파트 생태계 (2017)

<고양이를 부탁해>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전면에 드러나는 영화이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녀에서 성인으로 접어드는 경계에 서 있는 등장인물들의 불안정한 심리가 인천의 공간적 특성과 면밀히 공명한다. 정재은 감독의 말대로, “인물 설정과 인천은 불가분의 관계다. 인천은 주변 도시다. 우울하고 비관적인 주변이 아니라 생성하고 움직이고 도시 자체로서 열려” 있다. 그동안 인천은 그들에게 일상의 추억을 쌓아가는 친숙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성인이 되어 스스로 삶의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인천의 주변성은 날카롭게 피부에 와닿는다. 이제 그들은 인천에 대한 동상이몽 속에서 각자의 꿈을 쫓는다.

서울에 있는 증권사에 취직을 한 혜주는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이 되려는 야망을 지니고 있다. 그에게 인천은 그저 자신이 속한 계급을 상기시키는 숨기고 싶은 출신지일 뿐이다. 지영은 직물 디자인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가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변변한 ‘스펙’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조부모와 사는 낡은 집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결국 집이 무너져 조부모가 돌아가시지만, 그는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수감되고 만다. 한편, 태희는 아버지의 찜질방 일을 도우며 장애가 있는 시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할 뿐, 아직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소외된 이들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그는 그들과의 마주침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처럼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삐거덕 대기 시작한다. 특히 가장 친했던 혜주와 지영이 사사건건 부딪친다. 태희는 신분 상승을 위해 서울로 이사를 가고 성형수술도 마다하지 않는 혜주의 허영 가득한 태도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죽음에 대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지영의 불가해한 태도까지도 모두 끌어안으며, 균열을 봉합하고자 애쓴다. 마치 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관계를 돌보고 지켜내는 데 있는 것 같다.

마침내 태희는 아버지의 돈을 훔쳐 집을 나온다. 이제 막 출소를 한 지영에게 어디든 함께 떠나자고 제안한다. 그는 단순히 만족스럽지 못한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천을 떠난다. 그것은 인천을 서울보다 열등한 도시로 바라보며 그곳을 벗어나고자 했던 혜주의 욕망과는 분명히 다르다. 태희는 인천향으로 밀려드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삶과 그들을 환대하는 방식에 대한 감각을 배우고 키워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유목주의적 욕망은 바로 그 인천이라는 공간과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열려있는 공동체는 들어오는 모두를 환대하는 만큼 공동체를 떠나는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것은 공동체의 축소나 쇠락이 아니라 확장과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은 세계를 떠돌며 맺게 되는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갈 것이다. (김경태)



그대를 사랑합니다 Late Blossom

10.24.(일) 11:30

애관극장 2관

시놉시스

따뜻하게 눈 내리는 새벽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만석(이순재)’과 ‘이쁜(윤소정)’. 그대를 생각하기만 해도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 번지는 설레는 사랑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등에 업혀 “오늘은 뭐 했어?”라고 묻는 아내 ‘순이(김수미)’가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남편 ‘군봉(송재호)’. 서로가 없는 삶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두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노인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룬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주요 배경은 인천의 송의동 마을이다. 그곳은 언덕배기 위에 작은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달동네이다. 매일 새벽, 만석은 좁은 골목길을 오가며 우유를 배달하고, 이쁜은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밀며 위태롭게 경사로를 오간다. 그 공간적 특성은 그들이 만나 서로를 도우며 사랑에 빠지는 조건이 된다. 한편, 군봉과 아내는 자식들을 모두 분가시키고 둘이 살고 있다. 군봉은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일하면서 치매에 걸린 아내를 홀로 돌본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낮은 담장의 낮은 집들은 그들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며 지키고 있다. 이처럼 마을은 넉넉하지 못한 삶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한정되지도 않고,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그저 불편하지만 한 공간으로 재현되지도 않는다. 대신 노인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간적 기원으로 제시된다. 영화는 잦은 부감 쇼트로 마을을 내려다보며 그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자식들의 의무적 돌봄에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는다. 자식이 부재한 삶을 후회하지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식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영화의 미덕은 가족 공동체에게 노인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묻고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노인들이 서로를 적극적으로 돌보며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만석과 이쁜은 군봉을 도와 그의 아내를 정성껏 보살핀다. 노인들은 돌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주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년에 필요한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돌봄으로 연대한다.

나아가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오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방향으로 향한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이쁜은 그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 하나뿐인 아이를 병으로 잃게 된 과거를 털어놓는다. 만석은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생전에 아내에게 무심했던 자신을 한탄한다. 군봉은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했던 아내의 삶을 돌아보며 치하한다. 동병상련의 노인들은 가족보다 더 가깝게 서로의 삶에 개입하며 남은 생애를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이제 그들은 무력한 노년이라는 편견을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우뚝 선다. 그 주체는 삶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과 집착으로 향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기 삶의 결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다. 군봉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내와 함께 생을 끝내려 한다. 이쁜은 만석과의 사랑을 간직한 채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만석은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인다. 이미 그들은 함께 했던 추억을 가슴에 품고서 죽음과 마주할 용기를 얻는다. 특히, 임종을 앞둔 만석은 추억을 꺼내드는 대신 이쁜과 재회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미소 짓는다.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삶의 가치 기준이 된다면, 그들의 죽음을 함부로 동정할 수 없을 것이다. (김경태)

한국 | 2010 | 118' | ⑤

감독

추천민

- 7년의 밤 (2018)
- 광해, 왕이 된 남자 (2012)
- 사랑을 놓치다 (2005)



담보 Pawn

10.24.(일) 11:00

애관극장 3관

시놉시스

1993년 인천. 거칠고 까칠한 사채업자 ‘두석(성동일)’과 ‘종배(김희원)’는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얼떨결에 9살 ‘승이(박소이)’를 담보로 맡게 된다. 두석, 종배, 승이 세 사람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고, 그들은 어느덧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간다.

사채업자인 두석과 종배는 조선족 출신의 명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그녀의 9살 난 아이 승이를 ‘담보물’로 데려온다. 불법체류자였던 명자가 강제 출국을 당하면서 두석에게 큰아버지가 승이를 입양 보낼 때까지만 잠시 보살펴 달라고 부탁한다. 줄지에 두석은 종배와 함께 승이의 보호자가 되고, 승이는 어머니를 잃었지만 대신 두 명의 아버지가 생긴다. 물론 승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서로에게 차츰 마음을 연다. 앞으로 영화는 채무자와 담보물로 맺게 된 관계가 부녀 관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그런데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부녀 관계의 애뜻함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관객들을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영화는 이를 위해 승이를 돌봄이 필요한 아이로 바라보는 두석과 대비되는 일련의 인물들을 제시한다. 그들은 두석과 달리 승이를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두석으로부터 도망쳐 홀로 밤거리를 배회하던 승이에게 한 노숙자가 접근해서 납치하려 한다. 그는 집 나온 아이들에게 구걸을 시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가짜 큰아버지는 승이를 데려와 룸살롱의 마담에게 팔아버린다. 마담은 승이를 학교에 보낼 생각도 없이 밤늦게까지 잔심부름을 시키고, 손님이 던진 술잔 때문에 얼굴에 생긴 상처를 제대로 치료해 주지도 않는다. 두석은 이런 나쁜 어른들로부터 승이를 치열하게 지켜낸다.

두석은 한국 호적이 없어 학교 입학이 불가능한 승이를 위해 입양을 결심한다. 이제 두석과 종배는 모두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승이의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어느새 그들에게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선사하는 승이는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한 목표가 되어 있다. 이 영화가 품고 있는 뜻밖의 급진성은 바로 그 두 명의 아버지와 딸이라는 비규범적 가족 형태의 재현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익숙한 신파적 요소를 통해 그 낯선 가족을 감정적으로 동화시키고 납득시킨다. 어느새 아버지들과 승이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녀 관계의 모습들로 등장한다. 혈연 중심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녀의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더욱이 승이가 조선족이라는 설정은 그 입양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즉, 추방된 이주노동자의 딸을 기꺼이 입양하는 것은 타자와의 견고한 연대를 향한 상징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소외 계층에 대한 연민을 넘어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없다. 그 입양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님을 아는 승이는 사고로 실종된 두석을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며 그 은혜에 보답하려 한다. 눈물을 쏟게 만드는 슬픈 가족 멜로드라마라는 친숙한 장르 이면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곱씹어야 할 낯선 교훈이 있다. (김경태)

한국 | 2020 | 113' | 12

감독

강대규

· 하모니 (2009)



무뢰한 The Shameless

10.24.(일) 18:30

애관극장 2관

TALK

시놉시스

범인을 잡기 위해선 어떤 수단이든 다 쓸 수 있는 형사 '재곤(김남길)'. 그는 사람을 죽이고 잠적한 '준길(박성웅)'을 쫓고 있다. 그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는 준길의 애인인 '혜경(전도연)'. 재곤은 정체를 숨긴 채 혜경이 일하고 있는 단란 주점 마카오의 영업상무로 들어간다.

한국 | 2014 | 118' | 18

감독

오승욱

· 킬리만자로 (2000)

형사인 재곤은 범인 검거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난폭한 냉혈한이다. 그러면서도 형사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청탁성의 부정한 돈은 절대 받지 않으며, 그의 사전에 범죄 조직과의 협상이란 없다. 마치 그의 삶의 가치는 오직 그 견고한 정체성을 지켜내는데 있다는 듯, 병적으로 형사로서의 임무에 집착한다. 그런데 그가 쫓고 있는 살인범 준길의 애인인 혜경의 등장으로 그는 시험에 들게 된다. 그는 혜경을 감시하기 위해 그녀가 마담으로 일하는 단란 주점에 영업상무로 위장 취업하면서 점차 그녀에게 빠져든다.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관계의 선을 넘어 버린다. 재곤은 형사로서의 임무와 혜경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는 준길이 혜경에게 부탁한 돈을 대신 구해주면서 준길을 버리고 자기와 살자고 말한 뒤, 금세 농담이었다고 말을 바꾼다. 사실 준길은 혜경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기에 당장 그와 함께 할 수 없고, 빛까지 저가며 그에게 돈을 구해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를 버릴 수 없다. 결국 재곤은 혜경이 보는 앞에서 준길을 사살한다. 그렇게 임무가 전부인 남자와 사랑이 전부인 여자의 관계는 영원히 어긋나 버린다.

재곤은 수소문 끝에 인천 송림동의 허름한 집에서 빛을 갠기 위해 마약 중독자의 수발을 들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혜경을 찾아낸다. 영화에서 인천은 나이를 먹고 빛이 늘면서 서울 도심에서 주변부로 차츰 밀려나며 극한까지 내몰린 그녀의 비루한 삶과 공명한다. 그는 몇 날 며칠 동안 그녀 집주변에서 보초를 서듯, 혹은 용서를 구하듯 가만히 서있다. 혜경은 그런 그를 냉담하게 대할 뿐이다. 재곤은 그녀를 구원하기로 결심하며 마약사범들을 덮친다. 그러나 혜경은 그의 선의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증오의 눈빛으로 그를 노려본다. 재곤은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형사로서의 본분을 다 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소용없다. 그녀의 분노는 재곤이 신분을 속이고 그녀를 미끼로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사랑의 가치보다 형사로서의 소명에 더 우위를 뒀기 때문이다.

재곤을 불러 세운 혜경은 품에 안기듯이 그의 배를 식칼로 찌른다. 그 죽음의 포옹은 준길에 대한 복수의 의미를 넘어선다. 사랑이 전부인 내 삶/세계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최후의 발악이자 경고이다. 그리고 사랑보다 앞서 있는 그 견고한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은유적 몸짓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진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자신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 없어야 진짜 사랑이다. 그 진짜 사랑은 모든 법과 정의와 논리보다 앞서 있다. 혜경이 준길에게 그러했고 준길이 혜경에게 그러했듯이 말이다. 배에 칼이 꽂힌 재곤은 그 교훈을 몸에 새긴 채 비틀거리며 골목길을 내려온다. 그의 뒤로 펼쳐진 어두워져가는 도시 풍경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켜야만 하는 날것 그대로의 사랑을 잉태한다. (김경태)



슈퍼스타 감사용 Mr. Gam's Victory

10.23.(토) 19:30

애관극장 2관

TALK

시놉시스

1982년 프로야구 원년. '감사용(이범수)'은 팀에 왼손 투수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삼미 슈퍼스타즈'의 투수가 된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나가는 패전 처리 전문 투수로 전전긍긍할 뿐이다. 그러던 중, 사용에게도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겨보고 싶었던 감사용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국 | 2004 | 115' | ©

감독

김중현

· 국가대표 2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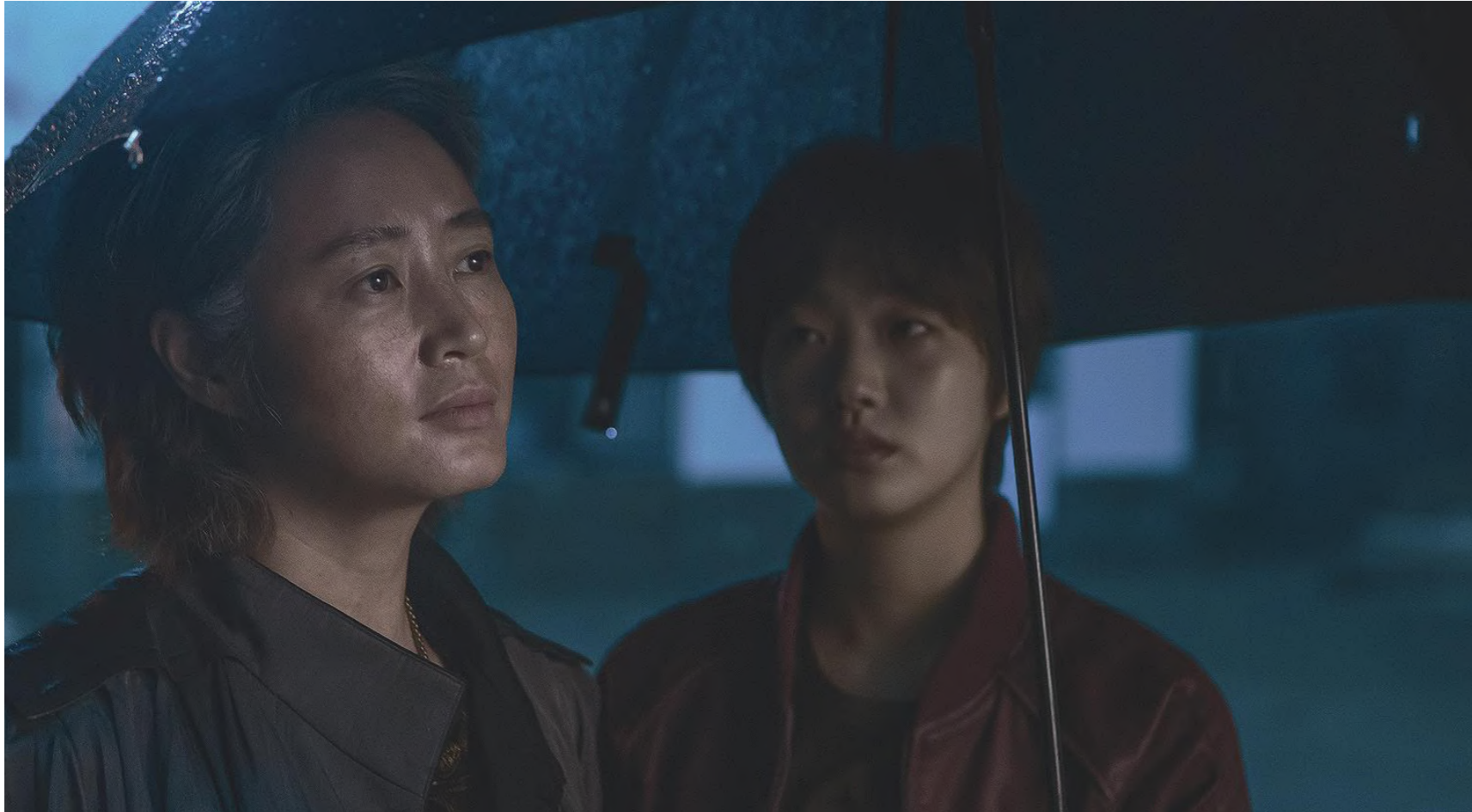
· 마이 뉴 파트너 (2007)

<슈퍼스타 감사용>은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에 인천 연고로 창단된 야구팀인 '삼미 슈퍼스타즈'가 당했던 18연패를 배경으로 한다. 당시 투수로 뛰었던 감사용은 원래 '삼미철강' 아마추어 야구팀의 선수였고, 주로 폐색이 짙은 경기를 마무리 짓는 '패전 처리 전문 투수'로서의 역할을 맡았다. 그는 애써 괜찮은 척 가족들에게 자신의 활약상을 지어내고 부풀리며 차츰 자괴감에 젖어간다. 아울러 연패를 당하며 꼴찌에 머무르고 있는 삼미 슈퍼스타즈의 동료들은 점차 패배주의에 길들여져 가며 갈등을 겪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프로선수로서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던 감사용은 감독에게 선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감사용을 선발로 쓸 생각이 없었던 감독은 그에게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프로라고 이야기한다.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기에 앞서, 팀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하는 프로선수로서의 사명을 강조한다.

삼미 슈퍼스타즈는 'OB 베어스' 선발투수 박철순의 20연승 대기록의 희생양이 될 위기에 몰린다. 선발투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와의 맞대결을 회피한다. 그러자 마침내 감사용에게 첫 선발승 기회가 찾아온다. 그 두 투수는 9회까지 팽팽한 맞대결을 벌이지만, 결국 감사용은 끝내기 홈런을 허용하며 승리를 놓치게 된다. 어차피 그의 패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를 응원하게 된다. 아니, 정확히 말해, 최선을 다 하는 그의 모습을,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로 뭉치게 된 팀을 응원한다. 그는 멋진 승부를 펼친 박철순과 멀찍이에서 목례로 인사를 나누며 서로에게 경의를 표한다. 경기장에 홀로 남은 감사용은 목 놓아 운 뒤, 훌쩍 털어버리고 다시금 승리를 다짐한다.

다음 날이 되자, 영화는 어제의 쓰라린 패배를 뒤로 한 채, 예의 그 티격태격 대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감사용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향해 야구공을 던지며 캐치볼을 하고 있다. 그는 호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곧바로 암전 된 화면 위로 자막을 통해 그의 첫 번째 승리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다. 그 첫 승이 안겨줬을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오롯이 관객들의 상상 속에 맡긴다.

뒤이어, 영화는 감사용이 야구팀 동료들과 웃으면서 바닷가를 달리는 훈련 장면을 롱테이크로 보여주며 끝맺는다. 그는 동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우애를 다진다. 따라서 영화는 승패의 의미보다는 동료애의 가치를 되새긴다. 인생이 그러하듯, 야구는 혼자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함께 뛰면서 패배의 아픔도, 승리의 기쁨도 함께 나눈다. 쓰라린 실패 앞에서도 서로가 곁에 있기에 금세 용기를 얻고 마음을 다잡으며 다음을 기억할 수 있다. 감사용의 미래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바로 동료들과의 관계 안에 있다. (김경태)



차이나타운 Coin Locker Girl

10.23.(토) 19:00

애관극장 1관

TALK

시놉시스

지하철 보관함 10번에 버려진 아이 ‘일영(김고은)’. 일영은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엄마(김혜수)’라 불리는 여자를 만난다. 엄마는 일영을 비롯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아이들을 거둬들이고 식구를 만들어 차이나타운을 지배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일영은 처음으로 차이나타운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궁금해진다.

한국 | 2014 | 110' | 18

감독

한준희

- D.P. (2021)
- 뽕반 (2018)
- 시나리오 가이드 (2013)

<차이나타운>이 묘사하는 인천 ‘차이나타운’은 우화적인 공간이다. 중국에서 온 밀입국자들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외계층들이 모여드는 무법지대이다. 그곳에서 신분증 위조와 불법대출, 장기밀매 등을 하는 범죄조직을 이끄는 화교인 ‘엄마’는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며 냉혹한 조직원으로 키운다. 그런데 모두가 그녀를 엄마로 부른다. 아이들에게는 자신들만이 그녀를 엄마로 부를 수 있는 특권마저도 없다. 엄마는 자식들을 범죄조직의 확대와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엄마가 엄마의 의미를 위반하고 있듯이,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모성애를 그녀에게서 기대하거나 목격할 수는 없다.

엄마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 보여야만 한다. 자식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사용가치로 판단되기에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진다. 버려진 신체는 인신매매와 장기밀매에 이용되며 교환가치로 전환된다. 엄마에게 인간은 바로 그 두 가지 가치로만 나뉘며 물화되어 있다. 영화에서 애초에 돌봄 노동에 충실해야 할 혈연가족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일영은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없이 버려졌고, 석현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고 있다. 힘을 잃고 파배한 공권력은 엄마와 결탁하고 있다. 도박 빛에 허덕이던 형사가 어린 일영을 엄마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일영에게 생존을 위한 선택지는 엄마 외에 없어 보인다. 엄마는 가족과 공권력의 기능 상실이 낳은 괴물이자 필요악일지도 모른다.

일영은 수금을 위해 찾아가던 석현에게서 따뜻한 돌봄을 받는다. 그는 파스타를 만들어 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준다. 그것은 익히 알고 있던 채무자의 태도가 아니기에 그녀는 당황해한다. 원래 그런 불법적인 채무 관계는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하기 때문이다. 돈을 받아내는 일에도 늘 신체적 위협이 뒤따라기에 긴장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타인에게서 받아본 적이 없는 무조건적인 친절인 약육강식의 세계에 길들여진 일영을 세차게 뒤흔든다. 인간을 사물처럼 대하는 가치관은 타인을 지향하고 위하는 돌봄 가치 앞에서 힘을 잃어버린다. 석현을 향한 일영의 마음은 사랑이나 연민을 넘어서 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일별했다. 일영은 엄마의 법을 거스르면서까지 엄마가 물려준 강한 의지로, 석현과 그의 세계를 보호하고자 애쓴다.

결국 일영은 자신을 길러준 엄마를 살해한다. 엄마는 저항 없이 일영의 손에 죽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군림했던 견고한 세계가 끝이 났음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그녀는 일영이 힘겹게 일궈낸 세계를 인정하며 이미 상징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자식을 위한 송고한 희생이라는 모성신화가 전혀 다른 의미로 탄생하는 순간이다. 여기에서 희생은 자식이 기존 질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돌보는 헌신이 아니라 자식이 발견한 새로운 세계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기 위한 자기 파괴이다. 이제 조직의 ‘엄마’가 된 일영은 타인을 위하는 돌봄이 지닌 무게를 절감하며 차이나타운을 현대의 공동체로 구축해 갈 것이다. (김경태)



천하장사 마돈나 Like a Virgin

10.24.(일) 14:30
애관극장 2관

시놉시스

고등학교 1학년 똥보 소년 '동구(류덕환)'. 육중한 몸매와 달리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의 장래희망은 '진짜' 여자가 되는 것이다. 알바를 하면서 성전환을 위한 수술비를 모으고 있던 중, '인천시 배 고등부 씨름대회'에 우승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씨름부에 가입한다.

<천하장사 마돈나>에서 동구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속하게 된 공동체들은 그에게 적대적이다. 먼저, 태생적 공동체인 가족은 폭력적인 가부장인 아버지에 의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집안에서만 아니라 집 밖에서도 폭행을 일삼으며 문제를 일으킨다.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피해 집을 나가버렸다. 이제 동구는 아버지를 지켜내야만 하는 부담과 불안까지 짊어지게 된다. 것처럼 돌봄의 주체와 대상 간의 자리가 수시로 뒤바뀌며 가족은 동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한편, 아버지는 립스틱을 바르는 동구를 목격했지만 애써 외면한다. 자식이 트랜스젠더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대할 수 있는 선택지와 감당할 수 있는 인식의 범주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다음으로는, 동구가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반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학교가 있다. 그곳은 학생으로서 의무적으로 속하게 되는 학업 공동체이다. 쌍둥이 형제는 그의 여성성을 꼬집으며 그의 신체를 여성의 신체에 빗대며 놀려댄다. 그리하여 항문은 여성의 성기가 되고 살찐 가슴은 여성의 유방이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권위적이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는 교사도 성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일본어 교사는 평소에 동구에게 친절하지만, 동구가 사랑 고백을 하자 본색을 드러낸다. 여자가 되려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 위해 애쓰지만 그가 속해있는 공동체들은 그 욕망을 이해하고 보듬기에는 경직되어 있다. 차이나타운에 살고 있는 화교 친구만이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결국 동구는 씨름부라는 대안적 공동체에서 지지와 위로를 받는다. 성전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가입하게 되는 씨름부는 기존 공동체들의 고착된 규범성에서 벗어나 있다. 씨름부 감독은 부원들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 의식도 없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다. 크게 간섭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율적으로 연습하도록 유도한다. 동구의 아버지나 학교의 교사들과 비교해 그는 분명 위반적인 가부장이다. 부원들은 훈련을 받고 규율을 체득하기보다는 유희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 서로의 몸들을 탐색한다. 그들은 어딘가 모르게 결핍되어 있다. 벗은 상체를 맞대고 시합을 해야 하는 종목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거드랑이를 지닌 부원과 너무 쉽게 발기를 하는 부원이 있다. 그리고 동구의 눈동자나 젖꽃판 등 신체적 특징들에 순수한 호기심을 보이며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는 부원도 있다. 이는 앞서 쌍둥이 형제가 어떤 편견 하에서 그의 몸을 상상하는 것과 다르다.

기존의 공동체들은 공동체의 규율을 구성원의 신체에 각인시키고자 애쓴다. 그들은 계급의식을 주입하고 무한 경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것은 공동체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씨름부는 머지않아 도태되어 버릴 공동체처럼 보인다. 그러나 차이에서 비롯된 차별 없이, 그리고 차이에 대한 이해의 강요나 압박감 없이, 오롯이 맨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서로를 포용하고 돌보는 공동체는 보다 견고하게 지속될 수 있다. 그 공동체의 기원은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김경태)

한국 | 2006 | 116' | ⑤

감독

이해영

- 독전 (2017)
-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2014)
- 페스티벌 (2010)

이해준

- 백두산 (2019)
- 나의 독재자 (2014)
- 김씨표류기 (2008)



파이란 Failan

10.23.(토) 16:00

애관극장 2관

TALK

시놉시스

‘강재(최민식)’는 불법 테이프를 유통하다가 걸려 열흘간의 구류를 살다 돌아올 만큼 보잘것없는 삼류 건달이다. 어느 날, 경찰로부터 부인인 ‘파이란(장백지)’의 부고 소식을 듣는다.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해 준 기억이 떠오르는 강재. 그는 그녀의 유품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한다.

한국 | 2001 | 116' | ⑤

감독

송해성

- 고령화 가족 (2013)
- 무적자 (2010)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06)

인천의 건달 강재는 조직생활을 같이 시작한 동기 용식이 이미 두목 자리에 오르는 동안 여전히 바닥을 전전한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고작해야 조직이 운영하는 술집의 기도 역할이며, 이제는 한참 후배들조차도 그를 무시한다. 건달로서의 야망은커녕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도 없이 오락실이나 기웃거리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낼 뿐이다. 무엇보다 그는 폭력조직에 몸 담기에는 마음이 너무 여리다. 여리다는 것은 그만큼 타인의 마음에 쉽게 감응한다는 것이다.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독한 착취에 지속적으로 동참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무감각해야 한다. 공감 능력의 상실, 적어도 영화 속에서 그것은 조폭으로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요건처럼 보인다.

한편, 중국에서 고아가 된 20대 초반의 파이란이 이모를 만나기 위해 인천의 차이나타운까지 온다. 그러나 이모는 이미 캐나다로 이민을 간 후였다. 그녀는 인천에 남아 돈을 벌고자 한다. 인력소개소는 이주노동자로서 그녀가 처해 있는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그녀를 강원도 고성에 술집에 돈을 받고 넘기려 한다. 강재는 얼굴조차 모르는 파이란과 위장으로 혼인신고를 하며 그녀를 착취하는 과정에 무심코 동참하고 만다. 구조적 착취는 가해자가 가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벌어지곤 한다. 실제로, 인력소개소는 인천 폭력조직들의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로 묘사된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오가는 인천은 그들에 대한 환대와 착취의 기로에 서있다.

뜻밖에도, 파이란은 자신과 결혼해 준 강재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다. 자신과 결혼해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가장 친절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착취의 공모자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의지하는 진짜 남편으로 믿고 있다. 강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서류상의 남편이지만, 그녀가 객지에서 외롭고 힘든 삶을 견디도록 해줬다. 반복컨대, 강재는 너무 투명하고 여리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이가 전하는 따뜻한 감사와 칭찬의 말에 쉬이 마음을 열어버린다. 그러나 강재는 파이란이 죽고서야 비로소 얼굴을 마주한다. 그는 지난날들에 대한 후회와 속죄의 눈물을 떨군다.

그동안 강재는 조직 안에서 그를 잘 안다고 자처하는 이들에 의해 함부로 재단되었다. 그러면서 직원으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이 되기를 강요받으며 시달려왔다. 이제 그곳을 나와 고향으로 내려가려 한다. 파이란 덕에 비로소 주체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삶이 만난 적도 없는 누군가에게 유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쉬이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독려한다. 의도치 않게, 느슨하고 약한 연결이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때로는, 잘 모르는 이에게 건네는 친절할 말 한마디가 그를 춤추게 할지도 모른다. 새로운 관계는 서로를 향한 진정한 몸짓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타자를 향한 감각을 여러게 버릴 필요가 있다. 저 먼 곳의 타자까지도 끌어안는 열린 공동체의 기원은 바로 그 여린 감각에 있기 때문이다. (김경태)

아카데미

인천 영화 주간은 아카데미를 통해 ‘열린 공동체의 도시, 인천’이라는 주제에 따라 상영작들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번의 토크를 기획했다. 먼저 첫 번째 토크에서는 인천 영화 주간의 김경태 프로그래머와 손희정 문화평론가가 만난다. 그들의 대화에서는 영화 속의 다양한 관계적 양상들을 통해 소수자를 환대하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토크에서는 변영주 감독과 김도훈 기자가 마주한다. 그들은 영화 현장과 가깝게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미 넘치는 도시를 담아낸 영화들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토크

영화가 상상하는 환대의 방식들

일시 10.23.(토) 16:30
장소 애관극장 3관
참석 김경태(인천 영화 주간 프로그래머), 손희정(문화평론가)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영화들이 주류에서 배제된 이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그들은 서로를 환대하며 대안적인 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고유한 방법들을 상상하고 고민한다. 일례로,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들은 교복으로 상징되는 동질성에서 벗어나 이제 서로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할 순간에 봉착한다. 반면에, <천하장사 마돈나>에서는 여자가 되고자 꿈꾸는 소년이가 고등학교 싸름부에서 교복을 벗고 맨살을 부딪치며 뜻밖의 지지와 위로를 받는다. <차이나타운>에서는 화교 여성과 버려진 여자 아이는 서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이질적인 모녀 관계를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무뢰한>에서 살인범의 여자인 단란주점 마담은 우직한 형사로부터 기대와 의무를 넘어서는 돌봄을 받지만, 오히려 그에게 칼끝을 겨눈다. 우리는 이러한 익숙함과 낯섦 사이에 펼쳐진 다채로운 관계와 공동체의 향연 속에서 환대의 궁극적 의미를 희미하게나마 포착할 수 있다. 본 토크를 통해서 그 환대의 방식들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영화를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소수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겸비한 손희정 문화평론가는 더 없이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김경태

연세대학교 강사. 중앙대학교 영상예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으로 『친밀한 유토피아: 한국 남성 동성애 영화가 욕망하는 관계성』을 썼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객원연구원, 부산국제영화제 지식영화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손희정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페미니즘 리부트』, 『성평등』, 『다시, 쓰는, 세계』, 그리고 『당신이 그린 우주를 보았다』를 썼다. 공저에는 『을들의 당나귀 귀』, 『원본 없는 판타지』, 『21세기 한국영화』 등이 있고, 『여성괴물』과 『다크룸』 등을 번역했다.



토크

인간을 품은 도시, 도시를 품은 영화

일시 10.24.(일) 17:00
장소 애관극장 3관
참석 김도훈(기자), 변영주(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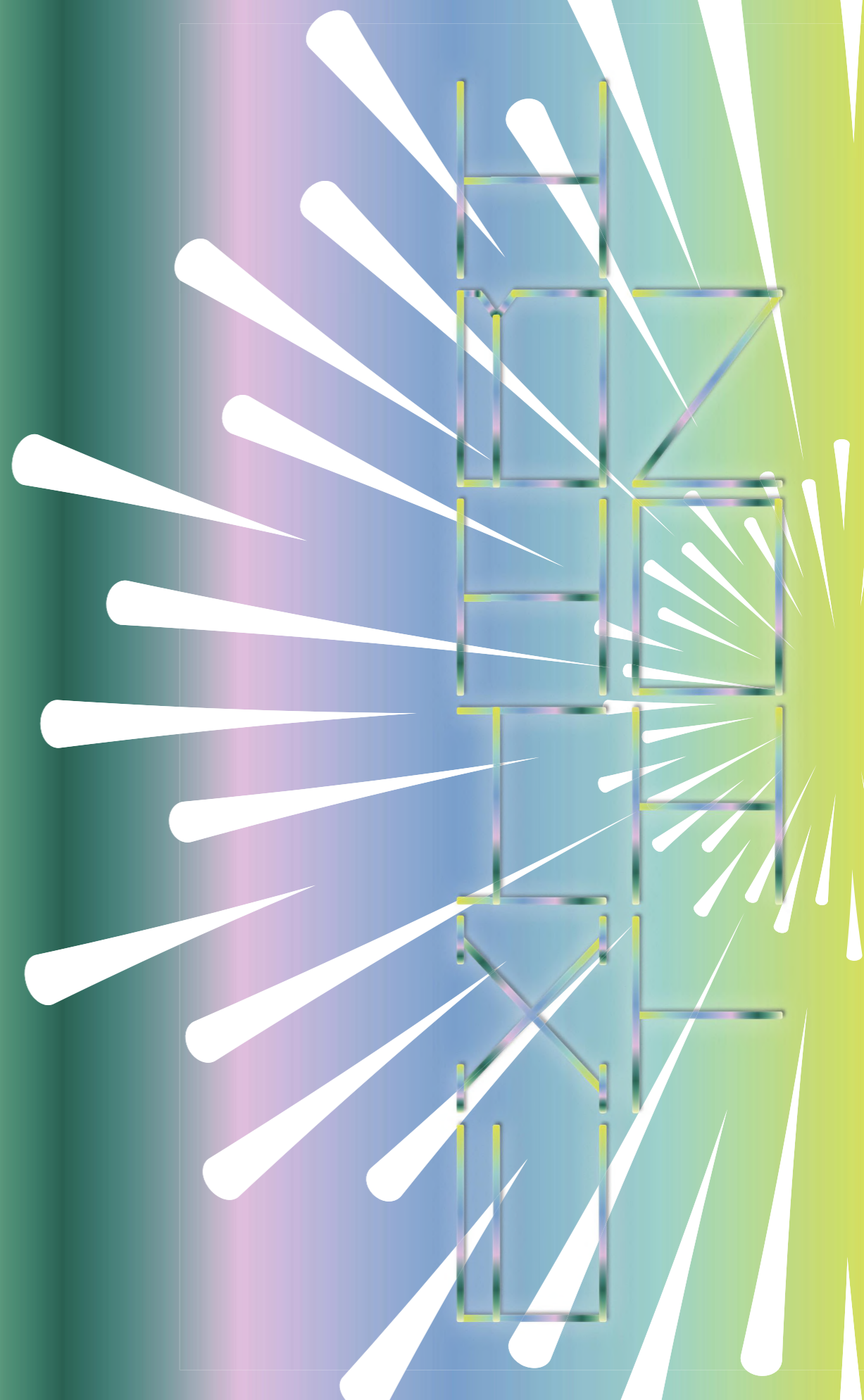
감독들이 인천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인천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이야기의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무한한 이야기의 원천은 무엇일까? 아마도 낮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인천은 대도시이지만, 그 어느 도시보다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 도로를 오가다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그대로 영화의 주인공들이 된다. 감독들은 도시의 고유한 풍경만큼이나 도시를 채우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에 이끌려 인천으로 온다. 도시는 다양한 만남들에 열려 있고, 영화의 모든 사건들은 의외의 마주침에서 비롯된다. 도시가 가진 특유의 구조와 경관에는 배경의 의미를 넘어 인물들의 다양한 마주침이 잠재해 있기에 매력적이다. 그리하여 영화는 도시의 주인이 거대한 마천루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본 토크에서는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중심으로, 도시를 품은 영화가 빚어내는 인간적인 이미지와 서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해박한 영화 지식의 소유자이자 탁월한 이야기꾼인 변영주 감독과 김도훈 기자의 유쾌한 입담으로 함께 할 수 있다.

김도훈

작가, 영화 칼럼니스트. 2004년 영화 주간지 『씨네21』 기자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남성 패션지 『GEEK』의 디렉터와 온라인 미디어 『허핑턴포스트』 편집장을 거쳤다. 에세이 『우리 이제 낭만을 이야기합시다』를 썼다.

**변영주**

영화 감독.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3부작, 극영화 <밀애>, <발레 교습소>를 연출했고, 2012년 <화차>로 제4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감독상을 수상했다. 그 외, 방송 <방구석1열>과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 출연하고 있다.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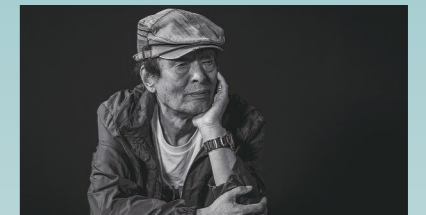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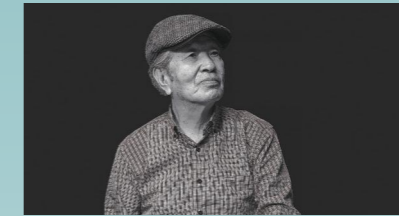
영화와 극장이 있는 인천 풍경

일시 10.19.(화)~10.29.(금) 11:00-18:00
 장소 부연(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106번길)

인천은 한국 최초 실내 영화관인 ‘협률사’가 자리한 곳으로 한국 영화의 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그때의 기록물이나 역사적 자료 등의 부재로 인해 ‘영화 도시 인천’의 정체성이 잘 부각되지 않았다. 아카이브 작업으로 수집된 영화인의 구술, 사진, 영상 자료를 전시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근대부터 이어져 온 인천의 영화사와 영화사 안에서의 인천의 중추적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또한,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 시민에게 인천의 영화사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영화 도시 인천’의 브랜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인천의 영화인 구술

- 인천 영화사와 삶을 함께한 인물들의 구술인터뷰 전시



이 구술에 대한 전시는 영화관의 대표, 간판 화가, 영사기사 등 해방 후부터 2000년대까지 극장의 운영, 상황, 영사실의 작업, 간판 그림의 작업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상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축적하여 아날로그적으로 영화가 상영되던 시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단순히 극장 및 이를 둘러싼 기술적 유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영화에서 수용한 영향과 자득하면서 이룩한 무형의 정신적 유산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며 중대한 문화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데 본 아카이브 작업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천 영화사 수집자료

수집 자료(사진, 영상, 기사) 및 원고를 바탕으로 한 전시로 시대, 인물, 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개항시대부터 근대까지 인천의 영화사에 대한 기록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인천의 영화인들

인천을 대표하는 네 명의 영화인 권철인, 임순례, 황신혜, 황정순을 통해 인천 영화 이야기를 읽어본다.

전시 참여

전시기획 : 서은미

전시연출 : 유창호

진행, 행정 : 이현령

도움 : 강덕우, 강성률, 강옥엽, 김윤식, 미림극장, 윤진현, 전갑생

인천 영화 열전 프로그램 일정표

일자	장소	시간	프로그램	상영정보	등급	페이지
10.26.(화)	영화공간주안 3관	17:00	인천 영화 단편전1 : 다정을 위한 시간	영화해설	⑫	P.39
		18:30	인천 영화 단편전2 : 코리아타운, 짝사랑	TALK	⑫	P.40
10.27.(수)	영화공간주안 3관	17:00	인천 영화 단편전3 : 실버벨	영화해설	⑮	P.39
		18:30	인천 영화 단편전4 : 귀벌레, 남남	TALK	⑮	P.38
10.28.(목)	영화공간주안 3관	14:00	인천 영화 단편전5 : 아역배우 박웅비, 웅비와 인간 아닌 친구들	영화해설	㉔	P.43
		15:30	남매의 여름밤	영화해설	㉔	P.42
		18:00	휴가	영화해설	⑫	P.42

인천 영화 열전 지역 영상인력 및 단체지원 씨네인천

인천영상위원회의 대표 지원 사업 '지역 영상인력 및 단체지원-지역 영상인력 지원 '씨네인천'(이하 씨네인천)은 지역의 영상인력 및 단체의 발굴·육성·지원을 통해 지역의 영상생태계를 조성하고, 영상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씨네인천'은 지역 창작자의 장편영화 기획개발 및 단편영화 제작비 지원, 이에 더해 지원작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단계별 멘토링, 특강, 기술시사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완성된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원활한 배급 및 상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도 병행된다. 그동안 영상인력 지원은 130여편의 장·단편 영화를 지원, 국내 우수 영화제에 꾸준히 선정/상영되는 성과를 인정받아오고 있다.

지역 영상인력 지원 '씨네인천'의 공모는 매년 봄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영상단체를 지원하는 지역 영상단체 지원 '씨네리천'과 함께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if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귀벌레 Earworm

박나나 | 한국 | 2020 | 18' | ©

인천 영화 단편전4
10.27.(수) 18:30
영화공간주안 3관
TALK

시놉시스

수능이 끝난 어느 날, 고등학교 삼학년 마치는 한 때는 쌍둥이처럼 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원해진 친구 아영의 죽음 소식을 듣는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추모와 함께 눈물을 흘리지만 마치는 아직 아영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다.



남남 Where Is Our Love Song

고경수 | 한국 | 2021 | 22' | 15

인천 영화 단편전4
10.27.(수) 18:30
영화공간주안 3관
TALK

시놉시스

기타를 맨 민철이 산에 올라가고, 현진은 헉헉대며 그와 발을 맞춘다.



다정을 위한 시간 Hours For Sweetness

김지현 | 한국 | 2019 | 32' | 12

인천 영화 단편전1
10.26.(화) 17:00
영화공간주안 3관
영화해설

시놉시스

악명 높은 사장의 퇴임식 날, 비서는 도망가 버리고 그 자리를 계약직 사원인 하나가 대신하게 된다. 사장은 하나에게 자신의 딸 다정을 돌보라고 지시한다.



실버벨 Silver Bell

유수민 | 한국 | 2014 | 29' | 15

인천 영화 단편전3
10.27.(수) 17:00
영화공간주안 3관
영화해설

시놉시스

춘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누군가에게 핸드백을 날치기 당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이다. 춘자의 남자친구인 70대의 남성 문수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춘자를 다치게 한 녀석을 찾아 나선다. 할배들의 목표는 춘자의 병원비 보상과 그녀의 핸드백에 들어있던 소중한 물건을 찾아주는 것. 그들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짝사랑 Lovelylove

주영 | 한국 | 2021 | 29' | ⑫

인천 영화 단편전2
10.26.(화) 18:30
영화공간주안 3관
TALK

시놉시스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평범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인범에게 설레는 사람이 생겼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며 도전하는 하영은 특별한 꿈도 미래도 없던 인범에게 자극이 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한다.



코리아타운 Korea Town

안소희 | 한국 | 2019 | 22' | ㉔

인천 영화 단편전2
10.26.(화) 18:30
영화공간주안 3관
TALK

시놉시스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만난 진철과 중국 이주 노동자 성미는 진철의 봉고차에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둘은 성미가 가지고 있는 300만원으로 방이 딸린 가게를 구하려고 하지만, 이들에게 가게를 내주는 곳은 없다. 부동산을 돌고 온 저녁, 두 사람은 서로가 알지 못하게 배신을 준비한다. 성미의 전 재산 300만원을 훔친 진철, 그런 진철의 차를 몰고 달아난 성미. 차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폐차장을 찾은 성미는 자신을 찾아다니던 진철과 마주한다.



인천 영화 열전 다양성영화 공공상영관 별별씨네마

인구 300만 규모의 인천은 타 지역과 비교, 지역 내 영상 미디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영상위원회는 2013년부터 '다양성영화 공공상영관-별별씨네마' 사업을 운영하며 인천의 공공도서관, 문화공간 등을 다양성영화 상영관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영상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 내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에서 매월 주기적으로 정기 상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매 상영 종료 후에는 전문 큐레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수준 높은 영화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관객 커뮤니티 구성, 영화제 방문, 감독과의 대화 등의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수동적인 영화 관람을 넘어 관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화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성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시도를 기울이고 있다.

2020년 1월 코로나19의 첫 환자 발생 이후, 공공상영관에서의 상영이 어려워져 온라인 상영(인천영상위원회 유튜브 채널 라이브스트리밍 및 인천N방송 상영)을 병행하며 확장된 형태의 공공상영관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성영화들과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들로 인천의 곳곳을 찾게 될 '다양성영화 공공상영관-별별씨네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남매의 여름밤 Moving On

윤단비 | 한국 | 2019 | 104' | ©

시놉시스

방학 동안,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된 남매 옥주와 동주, 그렇게 오래된 2층 양옥집에서의 여름이 시작되고 한동안 못 만났던 고모까지 합세하면서 기억에 남을 온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10.28.(목) 15:30
영화공간주안 3관
영화해설



휴가 A Leave

이란희 | 한국 | 2020 | 81' | 12

시놉시스

해고노동자 재복은 5년째 집을 떠나 농성 중이다. 노조가 정리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재복과 동료들은 열흘간의 휴가를 갖기로 한다.

10.28.(목) 18:00
영화공간주안 3관
영화해설



아역배우 박웅비 Audition

김슬기 | 한국 | 2018 | 21' | ©

시놉시스

아역배우인 9살 웅비에게는 한가지 고민이 있다. 바로 연기할 때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아역배우들에게 조언을 구해보고, 슬픈 생각도 해보며 울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게 눈물이 나지 않는다. 오디션 때문에 눈물 연기가 있어 좌절하지만 고민도 잠시, 씩씩하게 자신만의 연기로 오디션에 임한다. 눈물 연기가 어려운 아역배우 박웅비의 힘찬 눈물 도전기!

인천 영화 단편전5
10.28.(목) 14:00
영화공간주안 3관
영화해설



웅비와 인간 아닌 친구들 Ungbi and Non-human Friends

김다민 | 한국 | 2020 | 18' | ©

시놉시스

같이 놀 친구가 필요한 웅비와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인 정체불명의 생명체.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이었던 둘의 관계가 서서히 전복된다.

인천 영화 단편전5
10.28.(목) 14:00
영화공간주안 3관
영화해설



2021 인천 영상 포럼

행사 개요

일시	10.29.(금) 13:00—18:00
장소	영화공간주안 3관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인천영상위원회
후원	영화진흥위원회
협력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 영화공간주안, 인천독립영화협회, 인천미림극장,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2021 인천 영상 포럼 프로그램 일정표

일자	장소	시간	프로그램
10.29.(금)	영화공간주안 3관	13:00	섹션 I <지역 극장의 활성화 방안 - 커뮤니티 시네마로의 확장 가능성>
		16:00	섹션 II <인천 문화생태계의 새로운 경향 - 청년의 출현>

섹션 I

지역 극장의 활성화 방안 - 커뮤니티 시네마로의 확장 가능성

10.29.(금) 13:00—15:00

커뮤니티 시네마는 ‘지역 공동체와 영화 문화의 관계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전 세계에서 사용 되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배급 마케팅의 사례인 공동체 상영을 시작으로, 극장이 아닌 공간들에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커뮤니티 시네마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지역 극장들은 지역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각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인천 지역의 극장과 커뮤니티 시네마와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극장들의 커뮤니티 시네마로서의 방향성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인사 및 소개**
사회자 : 심현빈 (영화공간주안 관장)
- **발제 : 커뮤니티 시네마의 개념 및 비전**
발제자 : 권현준 (커뮤니티 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 **발표 : 지역 기반 독립영화관의 커뮤니티 형성과정**
발표자 : 김현수 (모퉁이극장 대표)
- **토론 : 종합토론**

순서	토론자	소속
1	최현준	인천미림극장 대표
2	이은경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협동조합 이사장
3	태지윤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장
4	안수영	관교초등학교 교사

섹션 II

인천 문화생태계의 새로운 경향 - 청년의 출현

10.29.(금) 16:00—18:00

인천 문화 생태계 속 청년들은 어디에 있을까. 정부의 지역 문화 정책과 방향성, 인천지역의 문화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원도심인 중구와 동구로 들어온 청년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사례 발표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어 인천의 문화생태계 안에서 영상인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을까. 청년 인력들의 출현은 인천 지역의 문화생태계에 새로운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인사 및 소개

사회자 :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

· 발제 : 정부의 지역 문화 정책 방향과 인천지역 문화 생태계의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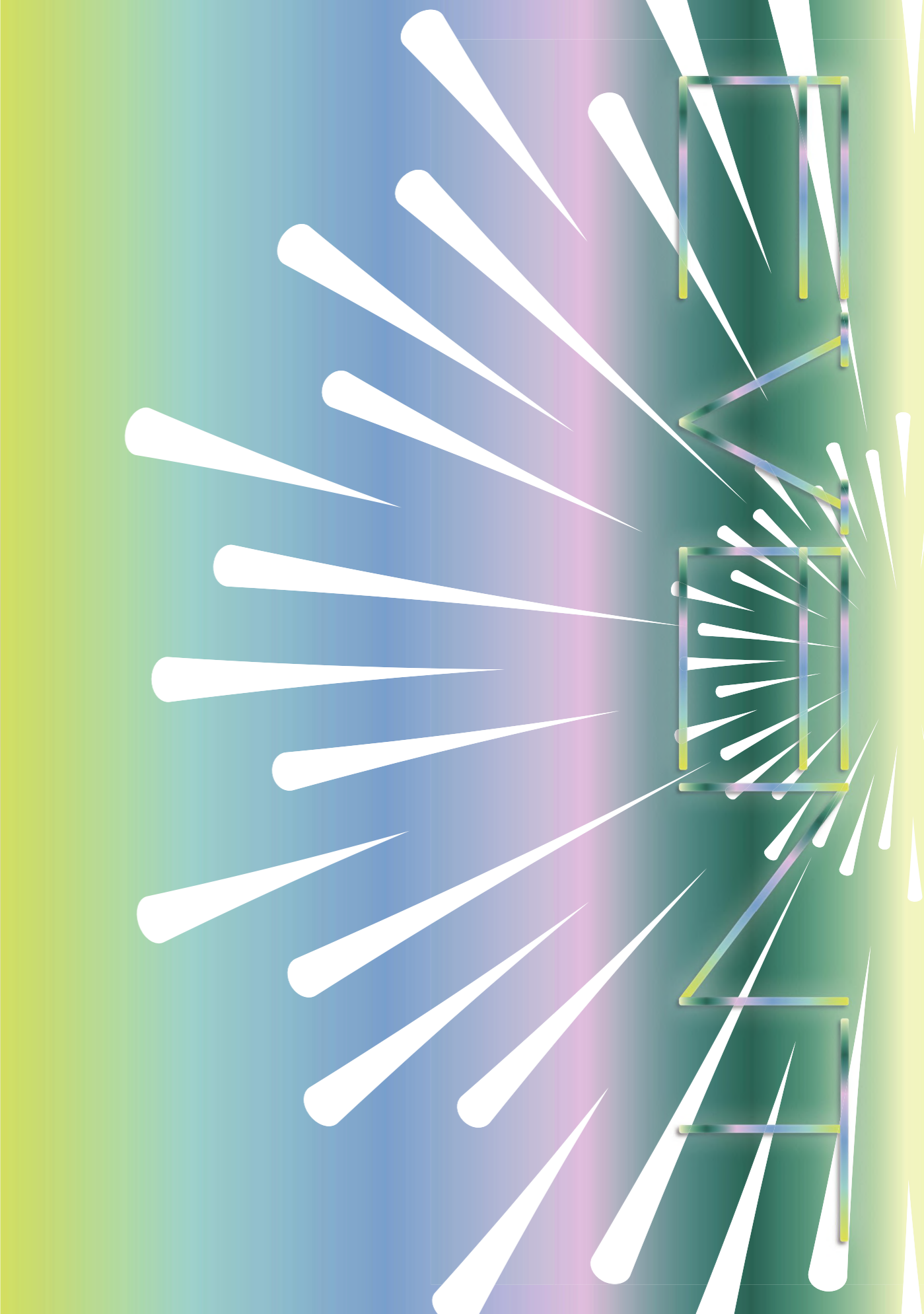
발제자 :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

· 발표 : 지역 청년들의 문화 활동

발표자 : 김아영 (인더로컬 협동조합 이사장)

· 토론 : 종합토론

순서	토론자	소속
1	안현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선임
2	손다혜	(사)인천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3	이준의	왓츠더웨더 공동대표
4	박지한	중구난방, 작가



이벤트

‘인천 영화 주간 2021’의 개막을 알리는 애관극장은 인천의 시네마 황금기를 기억하는 시네마 키드와 새롭게 자라는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애관극장 로비에는 영화와 같은 순간들을 기록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포토부스를 꾸릴 예정이다. 각자의 영화와 같은 순간을 마주하고 기록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 바란다. 또한 소소한 이벤트가 진행될 관객 심터에는 올해 인천 영화 주간의 정체성을 담아낸 대형 포토존이 설치될 예정이다. 애관극장 곳곳에서 나만의 포토 스폿을 찾아보는 즐거움을 만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화 같은 순간

치즈박스와 함께 하는 포토부스 ‘영화 같은 순간’은 애관극장을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 영화 주간에서의 추억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일시 10.23.(토)—10.24.(일) 10:00—19:00

장소 애관극장 로비

이용 유의 사항

- 발열 체크 및 출입 명부를 작성한 후 이용해주세요.
-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을 해주세요.
- 대기 줄에서는 앞사람과 거리두기를 유지해주세요.
-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포토부스 이용을 위하여 에티켓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주신 분들

강성률	영화평론가	서은선	큐레이터	이준의	왓츠더웨더
고경표	배우	성신득	THE CLM LAB	이혁상	디아스포라영화제
권현준	커뮤니티시네마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손다혜	(사)인천독립영화협회	장지혜	인천일보
김경아	인천광역시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전노민	배우
김구라	방송인	손영민		전무송	배우
김기봉	前 화가	송은주	인천광역시	전종화	영상번역가
김나은	영화공간주안	신나래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	전지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김아영	인더로컬 협동조합	신소라	큐레이터	전철원	모씨네사회적협동조합
김운봉	대한극장 대표	신안수	인천미림극장	정승오	감독/큐레이터
김인희	인디스토리	심현빈	영화공간주안	정호영	영화공간주안
김현섭	큐레이터	안수영	관교초등학교	조은빛	큐레이터
김현수	모퉁이극장	안현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조점용	前 영사기사
김효은	(사)인천독립영화협회	양경민		최민호	배우
남두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양재영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최주용	큐레이터
노윤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옥우진	인더로컬 협동조합	최현준	인천미림극장
노창우	한국영상자료원	윤치하	모두를 위한 극장	탁경란	애관극장
마동석	배우	이동윤	춘천영화제	태지윤	인천문화재단
박누리	인디스토리	이란희	감독	하성철	스튜디오210
박병규	(주)그린나래미디어	이용철	애관극장	한순덕	인천광역시
박지한	중구난방	이은경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협동조합	홍준호	인천광역시
백다빈	필름다빈	이은지	큐레이터		

인천 영화 주간 2021 INCHEON FILM WEEK 2021

발행인. 이원석
편집. 이진선
디자인. 이십칠와트
인쇄. 이십칠와트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06번길 17

Tel. +82 32 435 7172

홈페이지. ifwk.co.kr

발행일. 2021년 10월 6일

본 책자는 10월 6일자로 인쇄되었습니다. 이후 변동사항은 인천 영화 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든 사람들 Credit

운영위원장	이원석
사무국장	이재승
프로그램	김경태
기획/운영	김경진, 최다희
프로그램/초청	고은주, 박치영
홍보	고태윤, 이진선

행사기록 Photograph/Video

박준영, 최주용, 주식회사 왓츠더워드

주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주관  인천영상위원회
INCHEON
FILM COMMISSION